

콩 생육 관리, 물에 잠기면 정비 후 비료 줘야

농진청, “콩 병해충 제때 방제하고 잡초방제·복주기도 병행해야”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장마기 이후에 잘 발생하는 콩 병해충을 소개하고 잡초 관리와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7월 말은 6월 중순에 피중한 콩의 꽃이 피고 지면서 꼬투리가 생기는 시기이다. 특히 콩꽃이 피는 8월 초는 침수에 매우 취약한 시기이므로 재배지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재배지가 물에 잠겼다면 신속히 물을 빼주고 잎에 비료를 줘 피해를 줄인다.

불마름병은 초기에 잎에 조그만 점무늬가 나타나며 병이 진전되면서 커지고 담갈색으로 변하며 주위가 노랗게 된다.

탈분병은 잎에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갈색 죽은 반점이 나타나고 주위에 넓은 황색 띠가 생긴다. 비나 이슬로 잎이 젖어있으면 병원균이 주변으로 빠르게 번져 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담배거세미나방 애벌레

이때는 농작업을 피해야 한다. 평소 재배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상습 발

생지에서는 병원균에 감염될 수 있는 공과작물 재배를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탄저병은 잎에 어둡고 불규칙한 갈색 반점이 생긴다. 꼬투리가 감염되면 꼬투리 안이 곰팡이로 메워지고 종자가 조그라들어 비정상적인 모양이 된다. 검은뿌리썩음병은 처음에는 잔뿌리가 겹겹이 변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뿌리가 썩고 잎이 누렇게 되면서 낙엽이 진다.

미라병은 줄기나 잎자루에 반점이 생기고 꼬투리가 작고 납작해진다. 종자가 오그라들거나 길게 늘어나며 금이 가거나 썩는다.

나방류는 주로 담배거세미나방, 파밤나방의 애벌레가 잎을 갉아 피해를 준다. 애벌레가 커지면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발견 즉시 약제 처리한다. 발생 초기에 등록된 약제를 7~10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한다.

노린재류는 주로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가 어린 꼬투리를 가해해 피해를 준다. 콩 꼬투리가 달리는 시기에 등록 약제를 10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한다.

평소 비행이 활발하므로 활동이 적은 시간대에 방제해야 효과적이다. 잡초는 식물체와 경합해 수확량 감소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콩 파종 30~40일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잡초를 방제해야 수확량 감소를 막을 수 있다. 같은 시기에 복주기(배토)와 풀베기를 시작해 2~3회 정도 반복한다.

약제 방제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IS)에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등록 약제 관련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고지연 과장은 “고품질 콩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장마기 이후 재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때 신속한 재배관리로 콩 안정생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회장 김태희)는 전주시 장동 소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서 2024 수해 및 화재 이재민들을 위한 마음힐링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마음힐링키트’ 제작 봉사활동

전북은행 목련회, 수해·화재 이재민들 위해 진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회장 김태희)는 전주시 장동 소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서 2024 수해 및 화재 이재민들을 위한 ‘마음힐링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은행 여직원 모임인 목련회는 수해 및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재민들이 스스로 스트레스 반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마련했다.

전북은행 목련회 회원 및 자녀 40여 명은 마음 구호 안내서, 아로마 오일, 편백나무 주머니, 눈 찜

질팩 비타IC, 파스 등 총 6종으로 구성된 마음 힐링키트 200박스를 직접 포장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제작한 마음 힐링키트는 추후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를 통해 긴급한 재난 재해 상황 발생 시 지원이 시급한 이재민들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목련회 김태희 회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로 상심이 큰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번 봉사활동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활기찬 하루의 시작, 든든한 아침밥과 함께”

전북농협, 전북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 지속 전개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전북 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먹기 운동’ 홍보를 위해 지난 27일 전주기백축제를 찾았다.

전주기백축제는 10주년을 맞이하는 전주의 대표적 축제 중 하나로 올해는 관광객이 약 12만명이 찾은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방문객 대부분이 20·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젊음의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8년 61.1kg이었으나 지난해 56.4kg으로 감소 하는 등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균형된 식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전북농협은 축제를 방문한 관광객 특히

20·30대 MZ세대를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쌀 브랜드인 심리향을 기념품으로 제공했으며 생활 속 쌀 소비의 일환인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쌀 소비 증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김영일본부장은 “전주기백축제를 찾는 많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북 쌀을 홍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우리나라 대표작인 농도인 전북의 주 생산품인 전북 쌀이 앞으로 더 많이 소비 될 수 있도록 전북농협은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제를 방문한 한 관광객은 “전주가



마케팅을 방문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축제도 즐기고 쌀도 받아 기분이 좋으며 ‘아침밥에 대한 인식 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이 운동에 동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29일 전북반구 청사 내

에서 ‘아침밥 먹기 운동’의 일환으로 쌀버거 등 쌀로 만든 다양한 식품을 임직원들에게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도내 지자체·학교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개공, 전북지역 출연기관과 디지털혁신 기술 교류회 개최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공기관 간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혁신 기술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도내 출연기관 6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교류회에서는 참여 기관 간의 디지털 혁신 사례가 공유되었으며, 주요 기술로는 △AI 기반 챗봇 플랫폼(모든지 사원) △AI 활용 전자문서, 민원 자동배부 △결재문서 자동 스크래핑 △전자문서 내 개인정보 추출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었다. 이들 기술은 모두 무료로 배포되었다.

또한 Q&A 세션을 통해 각 기관의 실무자들이 디지털 혁신 기술에 궁금증을 해소 실질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기술 도입 과정의 어려움과 해결책을 공유,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공사 디지털혁신팀 관계자는 “이번 기술교류회를 통해 도내 출연기관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IX 찾은 베트남 공무원, 도시계획·관리 초청 연수

I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베트남 건설부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및 관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

14일~27일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는 IX가 2022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베트남 도시정보관리시스템 시범 구축 사업(KOICA ODA)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베트남 공무원들은 IX글로벌센터에서 진행된 국토계획·도시개발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강연을 듣고 베트남의 도시관리 효율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 시간도 가졌다.

또한 디지털 정부 구현 및 기존의 도시정보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및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미래 비전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수생들은 충남 공주에 위치한 IX 국토정보교육원을 방문해 도시관리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최신 공간정보기술을 경험하고 드론 토폴 스테이션 등을 활용한 측량 및 공간정보 데이터 분석 실습 과정에 참가해 실무역량을 높이는 기회도 가졌다.

베트남 건설부 타꾸억탕 단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국토계획 및 도시관리 분야 다양한 사례와 최신 기술을 경험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도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시점의 성공적 추진과 자국의 해당 분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